

AI 시대, 한국문학과 세계출판시장 관계 연구*

이구용** 박주택***

-차 례-

1. 들어가는 글
2. 세계출판시장에서의 AI 활용 수용 및 비판,
그리고 그 이중성
3. 세계출판시장에서의 출판 한류
 - 3.1. K-출판 한류 현황
 - 3.2. K-출판 한류에 나타난 주요 성과
 - 3.3. 주요 언어권별 출판 한류
4. 나오며

*본 연구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4단계 BK21 사업으로부터 교비 지원받은 연구임
(GS-1-JO-NON-info21연구과제번호).

**제1저자,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교신저자,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출판시장을 포함한 세계출판시장에서의 AI 수용 및 활용양상을 점검한다. 특히 한국문학을 비롯한 한국출판저작물을 수출하는 과정에서의 AI 활용양상을 살피는 가운데 확인되는 AI의 유용성, 한계,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쟁점을 점검하는 데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그리고 AI의 활용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그리고 쟁점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대응과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한 점검에 이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어, 세계출판시장에서의 주요 언어권별로 한국문학을 비롯한 한국출판저작물의 최근 2~3년간의 수용 현황을 점검하고 그를 통해 K-문학을 포함한 K-출판 한류의 흐름과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K-출판콘텐츠의 향후 비전을 전망하는 데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있다. 끝으로, 한국출판콘텐츠의 글로벌화를 위해 AI와의 조화로운 상상력이 지닌 의미와 가치 점검 또한 본 논문의 연구 목적 중 하나이다.

주제어 : AI 번역, 인공지능, 한국문학, 한국출판, 세계출판시장, K-문학, K-출판 한류

1. 들어가는 글

출판계는 이미 ‘복제’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를 관통한 후 또 다른 차원의 ‘혁명적 궤도’로 진입하고 있다. AI를 통한 ‘창작’과 ‘출판’이 일상이 되어가는 시대에 독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기기를 통해 각기 개성을 지닌 ‘21세기형 아우라’를 즐기고 있다.

AI 번역기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직장에서는 물론이고 개인의 일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그것이 유용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변화의 과정을 인지할 겨를도 없이 종이사전은 사라지고 무형의 공간엔 AI 번역기가 등장하여 그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특정 언어에 능숙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혹은 ‘출발어’에서 특정 ‘도착어’로 원하는 텍스트를 옮기고자 하는 번역가에게 AI는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수준에서 도움을 주거나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파트너가 되어 상상블을 이뤄가고 있다.

AI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오늘의 새 이정표가 내일엔 과거의 역사가 된다. 출판계에서도 신속히 AI의 기능과 역할을 수용하며 인공지능의 유용성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I가 지닌 한계성 인지와 그것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을 위한 유효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계와 학계 간 긴밀한 상호 협력이 필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한국출판저작물 수출과정에서의 AI 수용·활용양상을 살펴보고 거기서 나타나는 한계와 쟁점을 살피는 것이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이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출판시장에서 AI 수용과 그에 따른 비판적 사례를 함께 점검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출판시장의 흐름을 전망하고자 하며, 이것이 본 연구의 이차적인 목적이다. 그리고 최근 2~3년에 걸친 세계 주요 언어 권역별 한국문학의 진출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출판 한류’ 확대를 위해 인간과 AI와의 상상블이 어떤 산업적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한 가능성 점검 또한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이다.

2. 세계출판시장에서의 AI 활용 수용 및 비판, 그리고 그 이중성

자유로운 외국어 구사 능력과 관계없이 글로벌 출판시장에서 번역권을 수출·입하는 전문가들조차도 타 언어권 출판관계자들과 소통 시 상황에 따라 AI 번역기를 활용한다. 다양한 언어권의 출판관계자 간 주고받는 자료의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비영어권 저작권 수출·입 업무 담당자들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도서에 대한 영문 소개자료는 물론이고, 일부 특정 도서의 원고에 대한 샘플번역 진행 시 일차적으로 AI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해 작품 전체를 초벌 번역하고 나중에 인간 번역가가 번역된 결과값을 꼼꼼히 손보며 번역의 완성도를 높이는 사례도 있다. 인간 번역 시 요구되는 물리적 시간과 높은 번역 비용 절감이라는 유용성이 이런 사례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흐름은 향후 더욱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에서 출간된 타이틀 중 한국어로의 번역판권 수입을 염두에 둔 경우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수많은 타이틀 중 관심을 갖고 검토할만한 책과 저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번역판권 수출·입 실무자들은 일상에서 AI 번역기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일례로, 그들은 미국 대형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닷컴에 올라 있는 타이틀에 대한 구체적인 영문소개자료를 비롯하여 해당 공간에 함께 업로드된 수많은 언론매체 (발췌) 기사는 물론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추천 글을 AI 번역기를 통해 신속히 파악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출판저작물에 관심 있는 해외 출판인들은 자신들의 관심분야 도서 검색 및 확보를 위해 일차적으로 한국 온라인 서점 등을 방문한다. 그리고 거기서 베스트셀러 목록을 비롯한 다양한 도서 정보를 AI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검색·파악한다. 이어 관심 있는 작가나 도서를 확보했을 경우 해당 작가나 도서에 대한 현지 어 번역판권 상황¹⁾을 한국 출판사나 에이전시로 연락하여 확인하고 검

1) 관심갖고 있는 해당 타이틀이 특정 언어권 현지에서 이미 계약되었거나 출간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당 타이틀에 대한 해외 번역판권을 관리하는 출판사의 저작권담당 부서나 에이전시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과정

토 자료를 확보한 후 구체적인 검토과정에 들어간다. 이처럼 AI 번역기는 전 세계 모든 언어권에서 번역관련 수출·입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유용한 활용 도구로 역할하고 있다.

세계출판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출판저작물에 대한 번역관련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 중 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출판관계자들은 각자의 관심 도서에 대한 현지어 번역관련 상황에 대한 문의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해당 도서에 대한 사전 내용 파악은 물론 한국에서의 시장 반응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AI 번역기를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이들 나라 소속의 여러 출판사에서 보내온 영문 메일에 표기된 한국어판 도서 제목을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AI 번역기의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비영어권 국가의 출판시장에서 그간 자주 지적되곤 했던 영문소개자료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과 인간 번역 시 들어가는 고비용에 대한 부담이 개선되면서 각국 출판사에서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출판물을 해외로 활발히 소개하는 것이 한층 쉬워졌다. 그러나 문제는 AI 번역기를 통한 번역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번역오류’에 대한 검토이다. 따라서 AI를 통해 확보된 번역자료 배포·활용 전에 전문가의 점검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최근 한국의 A출판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들이 자사의 문학작품에 대한 영문소개자료를 AI 번역기를 활용하여 준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자료는 해외에서 방문하여 동석한 외국 출판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AI 번역기를 통해 준비된 그 번역자료의 영어문장 수준이 훌륭하지 않다는 의견이 함께 자리한 외국 출판관계자의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 제기됐다.

A출판사 관계자는 그 자리에서 AI 번역기를 통해 해당 자료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연구자는 이 시점에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AI 번역기를 통해 최상의 고품질을 얻기 위해서는 번역기에 입력하는 오리지널 텍스트²⁾ 문장 자체가 일차적으로 높은 완성

을 거친다.

2) 출발어인 한국어 문장이다. 출판사는 한 권의 책이 출간되면 홍보를 위해 소위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와 도서 유통사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 서점 공간에

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초 작성된 출발어 문장이 비문이거나 모호한 표현이 포함될 경우 도착어로의 번역 결괏값이 기대치 이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번역작업 시 오리지널 텍스트(한국어)의 완성도 유지를 위한 전문적 검토가 먼저 요구된다. 다음으로는 번역된 결괏값에 대한 전문가의 점검에 대한 필요성이다. 이 두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소개하고자 하는 작품은 물론 해당 작품을 쓴 작가에게 까지도 ‘엉성한 작품, 엉성한 작가’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꼬리표로 달리게 될 것이다.

오늘날 세계출판시장에서는 인공지능 활용을 둘러싼 첨예한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미국의 대형출판사를 중심으로 자사 출판저작물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AI 기술 학습 목적’을 위한 자사 도서의 어떤 부분도 복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성’ 안내를 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출판그룹 중 하나인 펭귄랜덤하우스(Penguin Random House)가 그 대표 사례이다. 영국의 유명 출판전문지 『더 북셀러(THE BOOKSELLER)』는 “세계 최대 규모 출판사가 거대언어모델(LLM) 및 기타 인공지능(AI) 도구 학습에 사용되는 저자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페이지의 문구를 변경했다”³⁾는 펭귄랜덤하우스의 안내 메시지를 독점점적으로 공개하였다. 펭귄랜덤하우스는 전 세계 모든 임프린트(imprints)에서 발행되는 도서 판권면(copyright page)에 들어가는 문구를 수정하여 넣을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그것은 “이 책의 어떤 부분도 인공지능 기술이나 시스템을 교육할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⁴⁾라는 문구이며, 이것은 앞으로 발행되는 모든

도 해당 도서에 대한 소개자료로 그것을 업로드한다. 해외 출판인이 온라인 서점을 방문하여 해당 도서에 대한 내용 검토를 위해 AI 번역기를 활용하게 될 거라는 점까지 염두에 둔다면 완성도 있는 한국어 문장 구사는 더욱 필수적이다.

3) Matilda Battersby, ‘Penguin Random House underscores copyright protection in AI rebuff’, *The Bookseller*, 2024 10 18. (<https://www.thebookseller.com/news/penguin-random-house-underscores-copyright-protection-in-ai-rebuff>: 최종 방문일: 2024 12 13).

4) “No part of this book may be used or reproduced in any manner for the purpose of train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or systems”(원문 인

신간은 물론 향후 재인쇄되는 모든 구간 도서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북셀러』는 펭귄랜덤하우스 이외에 추가로 영미권의 또 다른 주요 대형출판그룹에 접근하여 AI가 제기하고 있는 도전 과제 관련하여 자사에서 발행하는 도서 관련면에 들어가는 내용 중 일부라도 변경을 했거나 수정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고, 그에 대해 팬 맥밀란(Pan Macmillan), 아셰트(Hachette), 사이먼 앤 슈스터(Simon & Schuster)는 논평을 하지 않았고, 또 다른 출판사인 파버(Faber)로부터도 논평을 받지는 못했으나 이곳에서는 최근 "편집, 확인, 발췌, 혹은 기타 목적"으로 자사 저자들의 책을 위해 작업하는 프리랜서가 AI 프로그램에 정보를 복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AI 정책(AI Policy)"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전하였다.⁵⁾

앞서 든 사례와 배치되는 경우의 예도 있다. 『더 북셀러』는 2024년 11월 4일자 기사에서 사이먼 앤 슈스터 소유의 네덜란드 최대 규모 출판사인 VBK(Veen Bosch & Keuning)가 자사 도서 중 일부를 AI를 활용하여 번역을 시도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전하였다. 이 출판사 대변인은 『더 북셀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일부 네덜란드 작가들과 함께 그들의 책을 AI를 활용하여 영어로 번역하는 한정적인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한 번의 편집 단계가 있을 예정이며, 저자들에게는 이에 대한 허가를 요청한 상황이다. 우리는 AI로 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역할(action)로 시작하고 끝난다. 번역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⁶⁾ 이 기사에 따르면 해당 작업은 일부 도서에 한정되며, 영어판권이 팔리지 않은 도서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이는 AI 번역기의 활용, 혹은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영미권의 분위기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용).

5) 앞의 기사 참조 및 인용.

6) Matilda Battersby, ‘Dutch publisher owned by Simon & Schuster to trial using AI for English-language translations’, *The Bookseller*, 2024 11 4.

(<https://www.thebookseller.com/news/dutch-publisher-owned-by-simon-schuster-to-trial-using-ai-for-english-language-translations>)(최종방문일: 2024 12

6)

이는 바로 그 영미권을 대표하는 출판그룹 중 하나인 사이몬 & 슈스터 소유의 네덜란드 출판사에서 실행되고 있는 사례여서 더욱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AI 번역기 사용을 제한하거나 그것에 우려를 표하는 기류에서 오는 부정적 피드백을 예상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판사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AI의 유용성과 비영어권 국가에서 출간되는 도서의 영어번역을 통한 세계 시장으로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바로 비영어권 국가 중 하나인 네덜란드에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역할과 활용에 유용성과 그것에 대한 견제나 제한이 공존하고 있다는 게 이번 사례를 통해서 또 한 번 입증되고 있다 볼 수 있으며, 여전히 그 서로 다른 가치 간의 공간과 상호 발전을 위한 절충은 앞으로 지식산업계에서 이해 당사자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는다.

3. 세계출판시장에서의 출판 한류⁷⁾

3.1. K-출판 한류 현황

글로벌 문화콘텐츠 시장에서 한국의 소프트파워 확산과 더불어 K-출판의 위상과 그에 따른 영향력 또한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 문단과 출판시장에서는 물론이고 한국문학이 81억 독자들의 일상 속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영국에서 2015년에 번역·출간되고, 2016년에 맨부커 인터내셔널상(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을 작가에게 안긴 것에 이어, 2024년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뚜렷한 성과이자 이정표이다. 이는 한국문학이 글로벌 독자들의 일상으로 깊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K-출판의 국제적 위상이 이제 더 이상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유행한 트렌드가 아닌, 깊이 있는 영향력

7) 2022년부터 2024년에 이르기까지 최근 3년에 걸친 세계 출판시장에서의 한류 현황을 해외 주요 일부 언어 권역별로 점검하였다.

을 가진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판산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유력한 영향력을 지닌 해외 출판사나 에이전트 등이 자신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지닌 한국문학을 중심으로 한 한국출판콘텐츠를 찾아 한국을 찾는 상황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불과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문학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엄선한 작품과 함께 영문 시놉시스와 샘플번역 자료 등 만반의 준비를 한 후 구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찾아 해외로 나가야만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일반 서적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다양한 장르의 웹콘텐츠 또한 세계 출판콘텐츠 시장의 중심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출판 및 문화콘텐츠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한국 출판저작물에 대한 활용의 다양성과 더불어 산업적 가치가 빠른 속도로 상승·확대되어 가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은 현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2023년부터 2024년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출판시장에서 자주 언급되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신조어 ‘힐링 소설(healing novel)’이다. 여기에 ‘코리안’이 더해져 ‘코리안 힐링 소설(Korean healing novel)’이라는 말이 런던도서전(London Book Fair)이나 프랑크푸르트도서전(Frankfurt Book Fair) 등 여러 국제도서전을 중심으로 국내외 출판인들 간의 소통 현장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고, 이것은 2024년 말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팍팍한 경제 사정에서 비롯된 불안으로부터 위로와 휴식을 고대하는 독자들에게 하나의 ‘쉼터’와도 같은 역할을 힐링 소설이 해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분야의 소설이 세계출판시장에서 폭넓게 확대되는 가운데 다양한 언어권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브라질의 한 출판사는 ‘힐링 소설’을 지목하면서 이 분야의 한국 소설 도입을 희망해오기도 했다. 그 중심에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과 황보름 작가의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등이 이 분야의 맹주로 먼저 자리를 확보했고, 이 작품들은 아시아권은 물론이고 영미·유럽의 출판시장으로 폭넓은 반경을 그리며 수출되어 번역·출간되었거나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다.

수많은 해외 언어권에서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또 다른 인접 언어권

으로 확대되는 동기부여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분야의 또 다른 책들이 가세하며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며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미예의 『달리구트 꿈 백화점』, 윤정은의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그리고 김지윤의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등이 바로 ‘코리안 힐링 소설’군(群)에 합류하면서 한국문학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다만, 이 소설군의 작품들이 한국출판, 혹은 한국문학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세계 출판시장에서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특정 스타일 부류의 문학이 단 수년 간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여 전체를 상징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엔 아직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2년에서 2024년에 이르기까지 이 분야의 한국 소설문학이 세계출판시장에서 출판 한류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문학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3.2. K-출판 한류에 나타난 주요 성과

한강은 2016년에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하며 국제 문학계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고, 2024년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문학의 글로벌 위상을 높였다. 『채식주의자』에서 보여준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은 통찰과 문학적 성취가 높은 평가를 받으며,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작품이 현대 문학에 기여한 독창성을 인정했다. 한강은 수상 소감에서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문학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한국문학이 전 세계 독자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랐다. 한강은 노벨문학상 수상 전, 2023년에 『작별하지 않는다(Impossibles adieux)』(Grasset)로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로 알려진 ‘메디치 외국문학상’⁸⁾을 수상했고, 2024년 3월에는 ‘프랑스의 에밀

8) 메디치상(Prix Medicis)은 1958년 제정되었고, 공쿠르상(Prix Goncourt), 르노도상(Le Prix Renaudot), 그리고 페미나상(Prix Femina)과 함께 프랑스의 4대 문학상으로 통한다. 메디치 외국문학상은 1970년에 신설하여, 신선하고 실험적인 작품을 선정해 시상해오고 있다. 『작별하지 않는다(Impossibles adieux)』는

기메 아시아문학상(Le prix Émile Guimet de Littérature asiatique)⁹⁾을 수상했다. 이처럼 한강은 2016년 영국에서의 맨부커상 수상이 이어 프랑스에서 2023년과 2024년 상반기에 연거푸 유력한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향후의 노벨문학상 수상 기대치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한편, 미국 페미니스트 프레스(Feminist Press)를 통해 안톤 허(Anton Hur)의 번역으로 2022년 4월에 출간된 신경숙의 『바이올렛(Violets)』이 하나의 이정표를 하나 세웠다. 이 책이 ‘전미도서평론가협회(NBCC, National Book Critics Circle)’가 수여하는 ‘전미도서평론가협회상(National Book Critics Circle Awards)’의 한 부문인 ‘바리오스상(Barríos Book in Translation Prize)’의 롱리스트(longlist)¹⁰⁾에 오른 것이다. 전미도서평론가협회상은 전미도서상과 쌍벽을 이루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가 2011년에 맨아시아문학상(Man Asian Literary Prize)을 수상했고,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2016년에 맨부커 인터내셔널상(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을 수상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2022년에 한국문학의 가능성과 잠재력, 그리고 그 다양성에 대한 확신을 세계 출판시장에 각인시키는 또 하나의 역사적 토대가 이정표가 세워졌다. 정보라의 『저주 토끼(Cursed Bunny)』(Algonquin Books)와 박상영의 『대도시 사랑법(Love in the Big City)』(Grove Press) 두 작품이 모두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후보에 오른 것이다. 최종 수상작이 되진 않았지만, 한국의 두 작가 작품이 나란히 후보에 오른

2023년 8월에 프랑스 출판사 그라세(Grasset)에서 번역·출간됐다.

- 9) ‘에밀 기메 아시아문학상’은 프랑스 파리 기메박물관(국립동양미술관)에서 프랑스 내에서 아시아문학을 활성화하고자 2017년 제정한 상으로, 시상 전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프랑스어로 번역·출간된 아시아 현대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수여된다. 국내 작품으로는 2018년 황석영의 『해질 무렵』이 2018년에 수상한 데 이어 이번 한강의 수상이 두 번째이다.
- 10) 최종 경쟁 후보작(쇼트리스트(shortlist))에는 오르지 못했다. 작고한 NBCC 이사회 멤버 그레그 바리오스(Gregg Barríos)의 이름을 따 새로 제정된 이 상은 문학의 예술적 가치를 기리고 영어권 독자들에게 세계문학을 보급함으로써 미국에서의 문학을 향유하는 문화를 확대해오고 있는 번역가들의 소중한 업적을 알리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이번 바리오스상 롱리스트에는 12 타이틀이 올랐고, 여기엔 소설 7개, 논픽션 2개, 시집 1개, 그리고 그래픽 소설 1개 타이틀이 포함됐다.

것은 한국문학이 글로벌 무대에서 예술적으로나 산업적으로 큰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례로써 의미를 지닌다.

2023년, 천명관의 장편소설 『고래(Whale)』는 미국의 아키펠라고 북스(Archipelago Books)를 통해 나왔고, 전년도인 2022년도에 정보라와 박상영이 올랐던 바로 그 상에 또 한 번 연속으로 후보에 오른 것이다. 특히 이 작품은 이번엔 톤리스트가 아닌 최종 경쟁 후보작으로서 쇼트리스트(shortlist)에 올라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세계 출판시장에서 한국문학의 저력을 이어갔다. 그리고 2024년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하나인 황석영이 이 상 후보에 오른 것이다. 이로써 3년 연속 한국 작가가 ‘부커상’ 후보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이로써 한강에 이어 향후 또 다른 한국 작가가 이 상을 수상하게 될 가능성과 함께 그 기대를 높였다.

일본에서도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 출판시장과 서점가에서의 관심과 조명은 계속 이어졌다. 황보름 작가의 장편소설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일본어판이 2024년도 일본 ‘서점대상’ 번역소설 부문에서 1위에 오른 것이다. 이 부분에서 1위에 오른 것은 한국 작가로서는 손원평에 이어 두 번째이고, 한국작품으로는 손원평의 『아몬드』와 『서른의 반격』에 이어 세 번째이다. 그리고 김호연의 『불편한 편의점』이 황보름의 작품에 단 몇 표 차이로 뒤진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이 소식은 1위에 오른 작품에 가려져 널리 알려지진 않았으나, ‘대상’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것으로 나중에 확인되었다. 이로써 한국문학이 일본 현지 독자들로부터의 큰 관심과 사랑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또 다른 한국 작가들의 책이 일본서점가에서 꾸준한 반응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청신호로도 해석된다. 김호연의 『불편한 편의점』에 이어 『불편한 편의점2』는 2025년 2월 말에 일본에서 출간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 문단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김혜순의 『날개 환상통(Phantom Pain Wings)』(New Directions)은 한국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시 부문에서 ‘2023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The National Book Critics Circle Awards for Poetry)’¹¹⁾을 수상했다. 이 시집은 김혜순 시인의 열세 번째 시집으로, 한국계 미국 시인으

로 활동하고 있는 최돈미(Don Mee Choi)의 번역으로 2023년 5월에 출간된 이후 현지 평단의 호평을 받았으며, 뉴욕타임스가 2023년에 선정한 ‘올해 최고의 시집 5권’¹²⁾에 포함되며 주목을 받았다.

3.3. 주요 언어권별 출판 한류: 영미권·일본어권·태국어권을 중심으로

3.3.1. 영미권

신경숙의 『바이올렛』(Feminist Press)이 2022년 4월에 미국에서 출간되었고, 같은 시기에 영국에서도 W&N을 통해서 출간되었다. 이어 이듬해인 2023년 4월에 신 작가의 『아버지에게 갔었어(I Went to See My Father)』가 미국 출판사 아스트라 하우스(Astra House)를 통해 번역·출간됐고 영국에서는 W&N을 통해 한 달 앞선 3월에 출간됐다. 이 장편소설은 『외딴방(The Girl Who Wrote Loneliness)』(Pegasus Books)과 『엄마를 부탁해(Please Look After Mom)』(Knopf)와 함께 신경숙의 ‘3부작(trilogy)’이라 불릴 정도로 내용상 연속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로써 신경숙의 소설은 2024년 말 현재, 『엄마를 부탁해』,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I'll Be Right There)』(Other Books), 『리진(The Court Dancer)』(Pegasus Books), 『외딴방』, 『바이올렛』에 이어 『아버지에게 갔었어』에 이르기까지 모두 여섯 편의 장편소설이 영미권에서 출간되는 성과를 올렸다.

김호연의 『불편한 편의점(The Second Chance Convenience Store)』은 2023년에 미국(HarperCollins)과 영국(Macmillan)으로 수출됐다¹³⁾. ‘코리안 힐링 소설’의 대표 작품 중 하나인 이 소설은 전술한

11) ‘NBCC 어워즈’로 불리기도 한다.

12) Elisa Gabbert, ‘The Best Poetry of 2023: Five collections our columnist loved this year’, *The New York Times*, 2023 12 8. (<https://www.nytimes.com/2023/12/08/books/review/best-poetry-books-2023.html>)

13) 2024년 10월 현재,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25개 국가로 번역판권이 수출되어 다양한 언어권에서 번역·출간돼 오고 있다. 특히 대만·태국·브라질 등의 나라에서는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이외에도 이탈리아·스페인·독일 등지에서도 독자들로부

바와 같이 영미권을 대표하는 출판사에 팔렸고, 2025년 6월에 출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에서 초대형 베스트셀러로 등극한 가운데 170만 부(전2권 합산)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고, 타이완에서는 역대 출판 한류의 길을 연 타이틀 중 하나인 『대장금』(은행나무)의 뒤를 이어 1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는 가운데 번역소설부분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던 이 소설은 향후 영미권 출판시장에서 어떤 퍼펙트를 이끌어낼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지영 작가의 『도가니(Togani)』는 ‘사형제’라는 이슈를 다룬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Our Happy Time)』(Short Books)에 이어 영미권에서는 두 번째로 하와이대 출판부(University of Hawaii Press)를 통해 2023년 4월에 출간됐다. 한국에서 2009년 출간된 이래 영화로도 제작되어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던 『도가니』는 특히 중국출판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정판을 내며 꾸준한 반응을 유지해 오고 있는 타이틀로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문학 소재로 담고 있는데, 영미권 출판시장에서 공지영 문학의 지평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3.2. 일본어권

손원평의 장편소설 『서른의 반격』이 2022년 ‘제19회 일본 서점대상’ 번역문학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손 작가는 이 부문에서 2020년 『아몬드』를 통해 1위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그런데 손 작가의 또 다른 장편소설 『프리즘』이 2023년도에는 ‘일본 서점대상’ 번역소설 부문 2위를 차지했다. 손 작가는 한 번의 수상도 쉽지 않은 상을 세 번(1위 2회, 2위 1회)씩 받은 것이다. 일본에서 어떤 작가도 앞으로 이 기록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일본에서 손 작가의 첫 단편 소설집 『타인의 집』이 2023년에 같은 출판사인 쇼텐샤(祥傳社, Shodensha)를 통해 출간됐다. 이 단편집이 해외에서 번역·출간된 것은 일본이 처음이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이어 그녀의 네 번째 장편소설 『튜브』가 2024년 8월에 같은 출판사를 통해 나왔다. 해외 출판시장에서 한 작가의 작품이 계속해서 한 출판사를 통해 출간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작가의 책이 현지 독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출판시장에서 유의미한 산업적 결실을 유지시킬 경우에 가능한 일이다. 결국 손 작가의 문학이 일본 출판시장에서 충성도 높은 독자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출판사 쇼텐샤 또한 작가 손원평을 하나의 ‘브랜드’로 구축해가며 관리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의 일본어판 판권은 2022년에 쇼가쿠칸(小学館, Shogakukan)으로 팔렸고, 2023년 6월에 출간됐다.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과 『아몬드』에 이어 이 책은 일본 현지 서점가에서 한국문학을 이끄는 새로운 주자로서 바통을 이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2』는 2025년 2월 말경에 제1권에 이어 같은 출판사를 통해 출간될 예정이고, 김 작의 2024년 출간작 『나의 돈키호테』 또한 같은 출판사로 번역판권이 팔려 향후 이 작품들의 성공은 김호연 작가 개인을 넘어 한국문학과 한국출판저작물이 일본출판시장에서 확고한 한국문학 시장을 형성해 나가게 되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

영화로 제작·개봉되어 화제가 됐던 김언수 작가의 『뜨거운 피』가 2023년에 일본의 후소샤(扶桑社, Fusosha Publishing, Inc.)로 판권이 팔렸고, 같은 해에 문고본 포맷으로 번역·출간됐다. 일본출판사들은 한국으로부터 번역판권을 수입할 때 신인작가나 기성작가를 막론하고 그들이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는 이슈가 있다. 글로벌 무대에서, 혹은 적어도 한국출판시장에서 대중적 인지도와 접근성을 확보한 것으로, 어떤 측면에서든 객관적인 검증이 완료된 작품 중심으로 번역판권 도입을 판단한다는 사실이다. 일본출판시장에서 한국의 다양한 작품들이 번역·출간되어 오고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언어권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3.3.3. 태국어권

동남아시아 출판시장에서 K-북 한류의 중심축 역할을 해오고 있는 태국은 아세안 시장에서의 ‘맹주’답게 꾸준히 유의미한 성과를 내오고 있다.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을 한층 더 부각시키며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출판사 아마린(Amarin Corporations Public Company Limited)은 2023년에 저자 김호연을 초대해 현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모션 마케팅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책은 이미 2023년 현재 태국에서 이미 10쇄 발행을 넘겼고, 『불편한 편의점2』를 2024년 상반기에 번역·출간했으며, 이어 김 작가의 2024년 출간작 『나의 돈키호테』의 판권확보를 마치고 2024년 말 현재 번역작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영의 장편소설 『시간을 파는 상점』도 2023년 말 현재 10쇄 이상을 발행하며 김호연 작가의 소설과 함께 태국출판시장에서 문학 한류를 이끌고 있다. 태국 출판사 아마린은 김선영 작가의 『시간을 파는 상점2』도 번역·출간하고 제1권과 함께 적극 홍보·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난도의 자기계발서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2012년에 태국에서 출간된 이후 10년을 훌쩍 넘기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여전히 태국 현지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 매대를 차지하며 굳건한 위치를 지속시켜 나가고 있다. 이 책의 경우 태국어판 10주년 기념 에디션으로 2023년에 특별 양장본까지 제작했으며, 2023년 현재 50쇄 이상을 발행하였다. 그런 가운데 2023년 8월에 태국출판사는 저자를 초청하여 방콕 시내 주요 대형서점에서 수일간에 걸쳐 릴레이 프로모션 이벤트 행사를 진행했고, 그와 더불어 현지의 다양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의 위상과 함께 2012년 출간 이후 명실공히 출판 한류를 이끈 원조 타이틀인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자사의 자기계발서 중 ‘대표 타이틀’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을 펼쳤다. 이 외에도 태국에서는 한국의 대표 웹소설인 싱송의 『전지적 독자시점』과 추공의 『나 혼자만 레벨업』 등의 시리즈도 꾸준한 반응을 이어오는 가운데 한국의 웹콘텐츠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한국의 웹소설뿐만 아니라 웹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버전의 한국 출판콘텐츠를

도입하여 출판해오고 있어 이 시장과는 앞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략적인 원원관계의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국가 중에는 태국에 이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출판 한류를 형성하고 있다.

현대인 대부분은 AI와 상상블을 이루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출판계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번역판권 수출·입 업무 담당자들은 상대적으로 AI 번역기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배경은 본고 서두에서 살핀 바와 같다. 여기서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진출하고자 하는 언어권이 어디냐에 따라 그 활용도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미·유럽 출판시장으로의 진출을 염두에 둔 경우는 AI 번역기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권역에서 업무 소통을 하는 담당자들이 한국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서를 소개할 때에는 영문자료 제공이 거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아시아권 소속 국가의 출판사들과 업무 협력을 할 경우엔 영미·유럽에 비해 영문검토용 자료 분량이 적거나 때로는 별도의 영문소개자료 없이 해당 도서에 대한 직접적인 검토를 위해 필요한 한국어판 본문 PDF만 제공하기도 한다. 그것은 아시아권 현지 출판사에서는 자체적으로 한국도서의 본문을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고 있거나, 혹은 각 출판사가 자체적으로 한국어 번역자풀을 어느 정도 운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4. 나오며

세계출판시장에서의 인공지능의 역할과 그것의 활용은 하나의 흐름이며 대세이다. 이를 견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시류에 반하는 것으로 이해될 정도이다. AI 역할 확대로, 번역계에서 일부 우려하고 있는 ‘번역자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일정 부분 이해는 되지만 전적으로 공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여전히 다양한 개성을 지닌 수많은 문학작품을 비롯한 저작물들은 인공지능이 아닌 훌륭한 인간 번역자를 찾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의 역할은 여전히 절

대적으로 중요한 역할과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효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금 당장에도 더 많은 훌륭한 인간 번역자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출판저작물 수출 확대를 위해 AI가 지닌 유용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연구와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네덜란드 출판사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출판시장에서, 특히 번역출판시장에서 AI를 활용한 번역의 산업적 유용성에 대해서는 이미 입증돼가고 있다. 비영어권 국가의 출판시장에서 영미권을 포함한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문으로 된 소개자료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소개자료 작성 시 AI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의 중요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확인하였다. 앞서 살폈듯이, “모든 것이 인간의 역할(action)로 시작하고 끝난다”고 답한 네덜란드 출판사 대변인의 말은 의미가 있다. AI가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전히 작업의 시작과 끝은 물론 과정에서도 인간이 개입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AI는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괏값을 내놓는다. 따라서 입력하는 텍스트 점검 시 전문가의 점검이 요구되며, AI가 수행한 결괏값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전문적인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드시 인간의 확인·점검 역할이 필요하다.

영미권을 대표하는 출판그룹 중 하나인 펭귄랜덤하우스는 자사 소속 저자와 그들이 출간한 도서 저작물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한 조치 차원에서 모든 도서 판권면(copyright page)에 관련된 문구를 넣고자 변경된 문구 내용을 발표하면서 자사 도서의 어떤 부분도 AI 기술 학습 목적을 위해 복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이처럼 세계출판시장에서는 AI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과는 별개의 또 다른 측면에서 AI 범용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저작권 피해를 사전 차단하거나 그것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살필 수 있었다. 이렇듯 세계출판시장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른 또 다른 차원에서의 변화와 진화를 예고하고 있다.

AI 시대에, 한국문학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영미권을 비롯한 세계

다양한 언어권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위상을 높이며 출판시장에서 그 위력을 과시해가고 있다. 바로 이런 환경에서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세계 주요 권역별 한국문학 진출 현황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한국문학을 비롯한 한국출판저작물은 세계 독자들과 활발히 만나며 소통하고 있다. 향후 다양한 출판콘텐츠가 세계 독자들과 더욱 활발히 소통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대된 다양한 분야의 출판콘텐츠가 글로벌 무대로 진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소설·희곡 등의 문학 분야뿐만 아니라 역사·철학·종교·예술 등 폭넓은 분야의 책을 번역할 수 있는 전문 번역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긴밀히 상상블을 이루며 협업이 진행된다면 한국출판콘텐츠의 영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능한 인간 번역가는 AI의 역할이 확대되면 될수록 거기에 비례하여 더 많은 수가 요구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Literature and the Global Publishing Market in the Age of AI

Lee, Koo-yong(Kyung Hee University)

Park, Ju Taek(Kyung Hee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acceptance and utilization of AI in the global publishing market including the Korean publishing market. In particular,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usefulness, its limitations, and issues of AI in the process of exporting Korean books Korean literature. The second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alternatives are need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AI and what responses and strategies are needed to resolve the issues.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K-Publishing Wave including K-Literature by examining the acceptance of K-literature in the last two to three years by some major foreign language territories in the global publishing market, and to forecast the vision of K-publishing contents. Final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meaning and value of a harmonious ensemble with AI for the globalization of K-publishing contents with Korean literature.

Key words : AI translation, Korean Literature, Korean Publishing, Global Publishing Market, K-Literature, K-Publishing, K-Publishing Hallyu

[참고문헌]

□ 단행본

박주택 외, 『인공지능과 문학의 미래』,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발터 벤야민, 반성완 편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1990.

□ 논문

이구용, 「세계 속에서의 한국문학: 해외진출 언어권 확대 방안 연구」, 『국제언어문학』 제57호, 국제언어문학회, 2024, 35-61면.

이구용, 「출판시장에서의 AI 수용 양상 연구」, 『국제언어문학』 제58호, 국제언어문학회, 2024, 201-225면.

이구용, 「AI 문학번역의 유용성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4호, 세명대학교, 2023, 620-642면.

□ 기타 자료

이구용, 「AI, 출판시장, 그리고 수용 양상 및 사례」, 『KPIPA 리포트』 Vol. 11, 2024, 3-10면.

Elisa Gabbert, 'The Best Poetry of 2023: Five collections our columnist loved this year', *The New York Times*, 2023 12 8. (<https://www.nytimes.com/2023/12/08/books/review/best-poetry-books-2023.html>)

Matilda Battersby, 'Dutch publisher owned by Simon & Schuster to trial using AI for English-language translations', *The Bookseller* (<https://www.thebookseller.com/news/dutch-publisher-owned-by-simon-schuster-to-trial-using-ai-for-english-language-translations>)(최종방문일: 2024.12.6.)

Matilda Battersby, 'Penguin Random House underscores copyright protection in AI rebuff', *The Bookseller*, 2024 10 18. (<https://www.thebookseller.com/news/penguin-random-house-underscores-copyright-protection-in-ai-rebuff>: 최종방문일: 2024. 12. 13.)

투고일: 2024.11.18 심사일: 2024.12.24 게재확정일: 2024.12.24